

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연구

(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, 1968 ~ 계속)

권건형, 이근섭, 양근주, 오준식, 정윤미, 고광섭, 이민섭

요 약

2015년도 산림병해충 예찰연구결과,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용인시가 총조사목 604건중 427건으로 재선충 감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, 남양주 순으로 조사되었다. 솔잎혹파리 충영형성율은 3.6%로 전년대비 5.9% 감소하였으며, 천적 기생율도 20.1%로 3.8% 감소하였다. 미국흰불나방 발생량 조사에서는 이천만 발생하여 피해증상은 미미하였다. 버즘나무방패벌레의 밀도조사에서는 안성에서만 엽당 2.9개체의 밀도를 보였으며 과주에서는 엽당 2.1마리 및 용인에서는 미발생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었다.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발생추이는 조사지역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특정지역 병해충 조사결과는 2015년도는 전년대비 병해충의 피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일부지역에서 건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.

I. 서 론

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는 주요 산림병해충들의 발생시기 및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 방제업무에 활용하며 주요 관광사적지, 국립공원 및 국도도로변의 가로수 등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, 건전한 산림유지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외래침입해충들의 생태를 구명하여 방제체계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